

인플레 우려에도 전기료 인상...연료비 상승·한전 적자 고려

인위적 억제 어려워져...연료비 연동제 실효성 우려도 부담

23일 정부와 한국전력이 4분기 전기요금을 인상하기로 한 것은 발전 연료비 상승과 한전의 경영 악화 등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물가를 자극해 서민 경제 어려움을 가중할 수 있다는 우려에도 더는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인위적으로 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2-3분기 유보 권한을 이용해 전기요금을 묶어놓은 상황에서 이번에도 동결한다면 정부가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를 정부 스스로 부정하는 셈이란 지적도 부담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

4분기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단가는 3분기보다 kWh당 3.0원 오른 0.0원으로 책정됐고 이에 따라 월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주택용 4인 가구의 10-12월 월 전기료는 최대 1천50원 오르게 된다.

올해부터 도입된 연료비 연동제는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유류 등 전기 생산에 들어간 연료비 변동분을 3개월 단위로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것이다.

4분기 평균 실적연료비(6-8월 평균 연료비·세후 기준)는 kg당 유연탄이 평균 151.13원, LNG는 601.54원, BC유는 574.40원이다. 3분기 때보다 유연탄은 17원 이상, BC유는 53원 이상 각각 올랐으며 LNG는 무려 110원 이상 상승했다.

이런 연료비 상승분을 반영하면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kWh당 10.8원으로, 전분기(-3.0원)보다 13.8원 올라야 맞지만 인상 폭은 3.0원에 그쳤다.

이는 분기별 요금을 최대 kWh당 5원 범위내에서 직전 요금 대비 3.0원까지만 변동할 수 있도록 상한 장치를 뒀기 때문이다.

전기요금에 오른 것은 2013년 11월 이후 약 8년 만이다.

정부와 한전은 연료비 연동제를 처음 적용한 올해 1분기에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3.0원 내렸다. 이후 2분기와 3분기에는 1분기와 같은 수준으로 요금을 묶어냈다.

연료비 상승으로 전기료 인상 요인이 생겼음에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과 높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2개 분기 연속 인상을 유보한 것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하는 등 최근에도 인플레이션 우려가 계속 커지자 4분기 역시 요금이 동결될 수 있다는 관측이 일각에서 나왔다.

하지만 정부는 결국 요금을 올리기로 했다. 연료비 상승분을 계속해서 인위적으로 배제하면 연료비 연동제란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국민 경제에 득보다 실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전의 적자가 쌓이는 점도 계속 요금을 묶어 놓기에 부담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고유가로 인해 2분기 연료비와 전력구입비가 전년 동기 대비 1조2천868억원(8.1%)이나 증가했지만 전기요금을 올리지 못해 전기판매

수익은 1.0%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로 인해 2분기에 7천억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냈다.

정부는 한전과 6개 발전자회사가 올해 4조원 상당의 적자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공기업 부채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더는 연료비 상승분에 따른 부담을 한전에 고스란히 떠넘기기 어려웠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번 요금 조정으로 연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결국 폐지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는 일단 가라앉게 됐다.

정부는 2011년에도 연동제를 도입했으나 유가 상승기와 맞물려 시행을 미루다 2014년 폐지한 전례가 있다.

전력 산업계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이행을 위해선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늘리고 전력 인프라 구축 등 안정적 전기 공급에 필요한 장기적 투자를 제때 실행하려면 전기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한전의 RPS(신재생에너지 의무 이행) 비율은 2016년 1조4천104억원, 2017년 1조6천120억원, 2018년 2조163억원, 2019년 2조474억원, 2020년 2조2천470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는 6월 말 기준 1조6천773억원으로 집계됐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석탄, 천연가스 등 연료비가 지난해보다 거의 2배로 오르고 한전의 재생에너지 전력구입비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증가한 상황에서 전기요금 3.0원 조정은 불가피한 결정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유 교수는 "사실 원칙대로라면 2-3분기에도 연료비 상승에 맞춰 전기요금이 조정됐어야 했다"면서 "3.0원 올려봐야 한전이 올해 대규모 적자를

피할 수 없으므로 충분하진 않지만 연료비 연동제를 살려놓는 신호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지난달 원유(原油) 가격 인상으로 예견된 우유 가격이 다음 달 1일부터 인상된다. 사진은 대형마트의 우유 및 유제품 판매대.

유제품 ‘도미노 인상’ 초읽기 서울우유, 내달 5.4% 올린다

남양·매일유업도 뒤따를 듯

지난달 원유(原油) 가격 인상으로 예견된 우유 가격 인상이 현실화했다.

서울우유협동조합은 다음 달 1일부터 우유 제품 가격을 평균 5.4% 인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중 흰 우유 1ℓ짜리 가격은 대형마트 기준 약 2천500원에서 2천700원 안팎으로 오른다.

서울우유는 "이번 가격 인상은 2018년 이후 3년 만으로 그간 누적된 부자재 가격, 물류비용, 생산 비용 증가 등으로 불가피하게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달 원유 가격 인상으로 경영 압박이 커졌다"며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인

상 폭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가격 인상은 낙농진흥회가 정부의 만류를 뿌리치고 지난달 1일부터 생산된 원유 가격을 ℓ당 947원으로 21원 올린 데 따른 것이다.

우유업계 1위 서울우유가 가격을 인상함에 따라 남양유업과 매일유업 등 다른 우유업체도 조만간 가격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매일유업 관계자는 "인상 요인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인상하겠지만 구체적인 시기와 폭은 여전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우유 가격 인상으로 우유를 원료로 쓰는 빵, 과자, 아이스크림 등 다른 식품 가격이 업종에 따라 치차 를 두고 줄줄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光銀 “금융상품 가입하고 캐스퍼 타세요”

창립 53주년 ‘볼수록 매력있어’ 이벤트...예적금 등 14개 상품 대상

광주은행이 창립 53주년을 기념해 금융상품 가입자를 대상으로 차량 등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23일 광주은행에 따르면 오는 11월15일까지 ‘볼수록 매력있어’ 이벤트를 진행, 1등 경품으로 ‘광주형일자리’ 모델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생산한 신차 ‘캐스퍼’를 증정한다.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이른바 ‘집콕’, ‘방콕’ 등 비대면 문화가 일상으로 확산됨에 따라 쿠팡이츠 상품권 및 wave(웨이브) 이용권 등 생활밀접쿠폰도 경품으로 준비했다.

‘볼수록 매력있어’ 이벤트는 광주은행 영업점 방문을 포함해 스마트폰뱅킹(APP), 모바일웹뱅킹 등 비대면 채널로 신용카드, 예·적금, 대출, 외화예·적금, 펀드, ISA 등 총 14종의 금융상품에 가입 시 자동으로 이벤트에 응모된다.

총 14종의 금융상품 중 가입 상품의 종류에 따라 메달 1개씩이 주어지며 메달을 8개 이상 받으면 금메달, 메달 6개 이상은 은메달, 메달 4개 이상은 동메달로 구분해 경품 추첨의 대상자가 된다.

당첨자는 오는 11월29일 광주은행 홈페이지에서 발표하며 금메달 1명에게는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캐스퍼’, 은메달 2명에게는 김치냉장고가 각각 증정되며 동메달 선착순 2만명은 쿠팡이츠 1만원권, wave(웨이브) 베이직 이용권, 적금통장(은행 부담 적금통장 1만1천원과 외화적금통장 10달러 중 택1) 중 1개를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송중욱 광주은행장은 “광주은행 창립 53주년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지역민들의 한결같은 성원에 보답하고자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기수희기자

현대차, 아이오닉 5 ‘IDEA 디자인상’ 금상 수상

현대자동차와 제네시스 브랜드(이하 제네시스)가 ‘2021 IDEA 디자인상(International Design Excellence Awards)’에서 금상 1개를 포함해 총 3개의 상을 수상했다.

23일 현대자동차 등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의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 5(IONIQ 5·사진)’가 자동차·운송(Automotive & Transportation) 부문에서 최고의 상인 금상(Gold)을 받았으며 ‘현대 블루링크 앱(Hyundai Bluelink App)’과 ‘카퍼 디자인 테마(Copper Design Theme)’가 적용된 제네시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디지털 상호작용(Digital Interaction) 부문에서 파이널리스트(Finalist)를 수상했다.

특히 ‘아이오닉 5’의 디자인을 엿볼 수 있는 콘셉트카 ‘45’는 이미 지난해 ‘IDEA 디자인상’에서



자동차·운송 부문 동상을 받으며 일치감치 글로벌 전기차 디자인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고유의 파라메트릭 픽셀(Parametric Pixel) 디자인 아이덴티티가 완벽히 적용된 ‘아이오닉 5’는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중 하나인 ‘IDEA 디자인상’의 최고상을 수상하며 현대차의 글로벌 디자인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기수희기자

난방비 똑똑하게 절약하는 방법!

- ①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는 20℃입니다. 난방온도 1도 낮추면 에너지사용량을 7% 줄일 수 있습니다.
- ② 북쪽이와 문풍지로 외풍을 막으면 실내온도를 2~3도 가량 높일 수 있습니다.
- ③ 내복, 양말 등 실내에서 방한용품을 활용하면 체감온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④ 전열기는 꼭 필요한 때만 사용하고, 사용 시에는 소비전력을 꼭 확인하세요.

한국에너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2022년 상반기 임용

한국폴리텍V대학 교수 초빙 공고

한국폴리텍대학에서는 4차 산업의 미래 기술을
이끌 교수(전임교원) 초빙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계열	인원	세부전공	주요교과목	캠퍼스
AI·SW	2	인공지능(AI)	시뮬레이션응용실무, 빅데이터처리, 딥러닝프레임워크, 인공지능융합실습	광주
기계	2	기계시스템제작/정비	시기반CNC공작기계, CAM / 범용장비운용, 공유압제어, 기계설계	전남, 순천
산업설비	2	설비기술/접합기술	에너지설비, 공조냉동, 배관설비 / 특수용접, 로봇용접, 파복아크용접	광주, 익산
자동화	1	PLC제어	공유압제어, 시퀀스제어실습, 자동화시스템제어	익산
전기	5	전기시스템제어	전기설비, 신재생에너지, PLC제어, 전력전자	광주, 전남 전북, 순천

원서접수 `21.9.23.(목)~9.27.(월) 온라인접수

서류심사 `21.10.14.(목)~10.20.(수), 합격자발표 10.25.(월) 15시

역량심사 `21.11.1.(월)~11.5.(금), 합격자발표 11.9.(화) 15시

면접심사 `21.11.16.(화)~11.19.(금), 합격자 발표 11.25.(목) 15시

신규임용 2022년 1월 중

자세한 사항은 한국폴리텍대학 홈페이지에서 확인

CMYK

+